

민주, 막오른 당권 경쟁... 실용 노선이나 일극 타파냐

이재명 '먹사니즘' 키워드로 민생 이슈 선점... 차기 지도자 면모 각인 김두관 '1인 체제' 문제점 지적... 비명계 규합 노리며 다양성 강조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후보가 민생·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며 대표에 당선되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

지를 비쳤다. 이 같은 전략은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넘어 대권을 바라보는 만큼 차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각인시켜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같은 당내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수권 능력을 보이고 '비전 경쟁'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전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정책인 종합부

동산세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금융투자세 유예 여지를 열어둔 것 역시 당 바깥의 중도층까지 겨냥한 '실용 노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향후 대표 선거 레이스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법 리스크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보다는 철저히 민생 이슈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출마선언문에 담긴 비전을 설명하는 등 경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할 현역 의원의 지원 없이 이 후보의 대항마가 된 김 후보는 '이재명 1인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다양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1인 정당", '제왕적 대표'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다양성, 역동성, 연대와 연합으로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이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남 김해 불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후보는 이날은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재명 대세론'에 최고위원 후보까지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상황에서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숨은 당심을 규합하기 위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등에 업으려는 행보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김 후보를 만나 "경쟁이 있어야 당의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 후보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후보 캠프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언더독' 전략이 적잖은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이 후보에 대해) 더 세계 얘기할 것"이라며 "30% 가까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노란봉투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김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당권주자 비방전 '점입가경'

후보들, 사천·땃글팀 운영 의혹 제기·총선 고의 패배 등 한동훈 맹폭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경쟁이 도 넘는 비방전으로 치닫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이슈를 떠오르면서 원외계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땃글팀' 운영 의혹, 측근의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하면서다. 원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를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로 규정하며 "사천 의혹, 사실 여론조사 성립 의혹, 김경을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시겠냐"라고 물었다. 그는 전날에도 한 후보가 '명품백 수수'에 사과 의향을 보인 김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 다면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닌지"라고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의 책임론을 재조명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친윤계 조정훈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문자 논란이 총선의 "광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며 이 문제를 백서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한 후보가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당무 개입'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한 사람이 한 전 위원장이고 '당무 개입'이 그때 나왔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밑받침을 한 전 위원장 임의로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원 후보가 제기한 세 가지 의혹을 부인하며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라고 역공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 후보의 '고의 패배' 발언을 두고 "지저분한 마타도어 수준을 훌쩍 넘었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아 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차기 당권 레이스가 당의 미래나 비전에 대한 논의 없이 인신공격성 비난과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수 여당으로) 의원들이 한 몸이 돼서 해도 힘든 판에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이성윤, 광주서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이 11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5·18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홀대'를 지적하며 호남권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과거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옹호하는 논문을 펴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호남에서는 이 의원과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출마표를 던져 호남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오는 14일) 예비 경선 이후에 문제지 지금은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광주 방문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왔다", "호남 대변인을 하겠다"는 호소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아쉬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혜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보조금 추가 지원 '반값 전기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1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앞으로 책임의원 제 도입을 통해 더 신속하고 촘촘한 예산과 입법 조치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책임의원 제 도입의 첫 결과물로,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 '반값 전기차' 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를 개정해 전기차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출시된 캐스퍼EV, 기아EV3 등 소형 전기 차 중에서는 '캐스퍼EV'만이 전장, 전고, 전폭 기



준을 모두 충족해 소형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GGM에서 생산된 '캐스퍼EV'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EV의 출고가격은 3149만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보조금 900만 원에 추가적으로 50% 보조금이 더해져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천 만 원대' 반값 전기차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정준호 의원은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EV 등 반값 전기차 실현으로 소형 전기차 생산의 전조기 지인 광주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생산라인의 확충을 통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주철현, 여순사건 진상보고 작성기획단 재구성 요구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이날 "여수순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 특위는 먼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단장을 포함한 다수의 작성기획단 구성원이 극우·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단체 활동에 참



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심각한 역사왜곡 망언으로 유족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 세간의 지탄을 받아 왔다. 특위는 진상조사 과제들을 전면 재설정하고,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는 무책임한 '외주화'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잇따르는 반역사적인 퇴행이 여순사건까지 이어진 결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마저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번 달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직접 요구해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자료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